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2.22.(수) 11:00 < 2.23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2.(수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310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열 (044-203-4311)

1차관, 기계업계 수출·투자 애로 점검

- 기계기업 대상 「제3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」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**장영진 1차관 주재로 2.22(수) 오후 서울 석탄회관** 대회의실에서 **「제3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」**를 개최하였다.

○ 산업부는 **정책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**하고 있으며, 디스플레이·철강기업에 이어 기계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.

○ 금일 회의에는 건설·공작기계 분야 주요 기업들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하여 금년도 기계 업계 수출·투자 전망, 기업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
<「제3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」>

○ 일시/장소 : '23.2.22(수) 14:00~15:00 /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

○ 참석자 : (산업부) 장영진 산업부 1차관(주재), 기계로봇항공과장
(기업) 현대건설기계, DN솔루션즈, 현대위아, 수산중공업, 남선기공
(유관기관) 기계산업협회, 건설기계협회, 공작기계협회

○ 주요내용 : ① 기계 수출·투자 전망 및 정부 지원계획
② 기업별 업황 및 애로사항

□ 업계는 올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해 **기계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**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,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**중소·중견기업 위주로 구성된 기계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**이라고 전망하였다.

○ 아울러, 글로벌 정세 불안 지속, 중국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**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지만,** 미국, 중남미 등의 **기반시설 투자 증가라는 기회요인도 존재**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○ 이에 참석기업들은 수출 판로개척 사업 및 금융지원 확대, 주요국의 무역규제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**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**하였다.

□ 장영진 1차관은 "올해가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산업은 **현재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돌파**하면서 **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역량도** 확보해야 하는 **중대한 시기**"라고 언급하고, "업계의 **당면한 수출애로 해소**와 **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○ 우선 "△기계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「수출 애로지원 데스크」 등 **정부-업계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**하고, △기업 수요 기반의 **유망 신(新)시장을 발굴하여 수출정보 및 마켓팅 지원을 강화**해 나갈 것이며,

○ △기계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시급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'23년 **3.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**(금융위 협의)**도 공급**할 계획"이라고 언급하였다.

○ 아울러, "금년도 **약 1,500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(R&D)를 투입**하여 기계산업의 핵심기술 내재화, 디지털·친환경 전환 등을 가속화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"자국 중심주의, 탄소중립 등 주요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면서 **기계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바**, **업계와 긴밀히 소통**하며 **필요한 정보를 즉시 공유**하여 **부정적 영향이 최소화**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"고 강조하였다.

□ 장영진 1차관은 "올해 한해 산업부는 **수출·투자 확대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을 밀착 지원**할 계획인바, 업계도 **적극적인 신시장 개척**과 **과감한 투자로 화답**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